

2026 AI 활용 사례 공모전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

컴퓨터가 서툴렀던 50대 대표,

AI로 만든
우리 회사 업무공간

Google 연동부터 대화·업무 기록까지,
내 경험에 맞춰 직접 만들고 사용하는 업무앱

최윤경

WD WAVE · 소규모 회사의 맞춤형 업무 개선 사례

01 / 필요성을 느낀 순간

상담부터 영업·강의까지,
할 일은 많고 정리는 어려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한눈에 정리하고 챙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서툰 50대인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상담·영업·강의를 병행해 챙겨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고객 약속부터 상담 자료, 강의안과 직원 업무까지,
할 일과 자료가 흩어져 정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획보다 그때그때 움직이는 'P형' 성향인 데다,
나이가 들며 깜빡하거나 하려던 일을 놓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과 업무 흐름을 한곳에서 살피고,
잊은 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업무 속에서 겪었던 불편함



01 흩어진 업무와 자료

노션·엑셀로 정리해도
메일·일정·자료가 흩어져,
여러 창을 오가며 확인하고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02 부담스러운 개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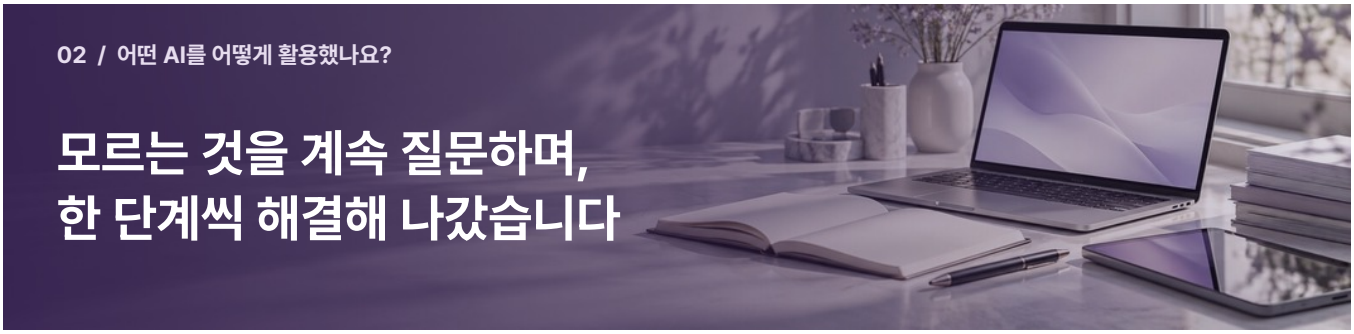
필요한 기능은 단순했지만,
개발 비용이 부담됐습니다.
우리 회사 업무에 맞는 도구를
직접 만들고 싶었습니다.



03 어려운 영어 설정

코딩 없이 앱을 만드는
AppSheet도 시도했지만,
영어 메뉴와 설정이 어려워
혼자 만들기엔 막막했습니다.

내가 도구에 맞추기보다, 내 일에 맞는 도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02 / 어떤 AI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모르는 것을 계속 질문하며,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엑셀과 컴퓨터도 서툴렀던 저는 프로그램이나 코딩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ChatGPT·Claude·Gemini에 필요한 것,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을 제 말로 계속 물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하고, 한 단계씩 처리하며 업무앱을 만들었습니다.

01

꾸미지 않고, 내 말로 물었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려고 하기보다,
일하며 필요한 것과 모르는 것을
평소 쓰는 말로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02

이해할 때까지 다시 물었습니다

답변이 어려우면 쉽게 풀어 달라고,
한 번에 말고 단계별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03

써 보고, 막히면 다시 물었습니다

만든 화면을 직접 쓰며 불편한 점을
다시 설명하고 배치와 기능을 고쳤습니다.
질문·확인·수정을 반복한 과정이었습니다.



AI의 제작 지원에, 기존 서비스를 연결했습니다

AI는 기능 정리와 앱 제작·수정을 돕고, Google 서비스는 업무 정보를 연결합니다.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정하고, 직접 써 보며 수정 방향을 판단하는 역할은 제가 맡았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함께 쓸 업무앱을 만들면서, 하나의 계정을 여럿이 공유하는 방식은 바꾸고 싶었습니다. 회사 업무는 같은 공간에서 처리하되, 들어오는 사람은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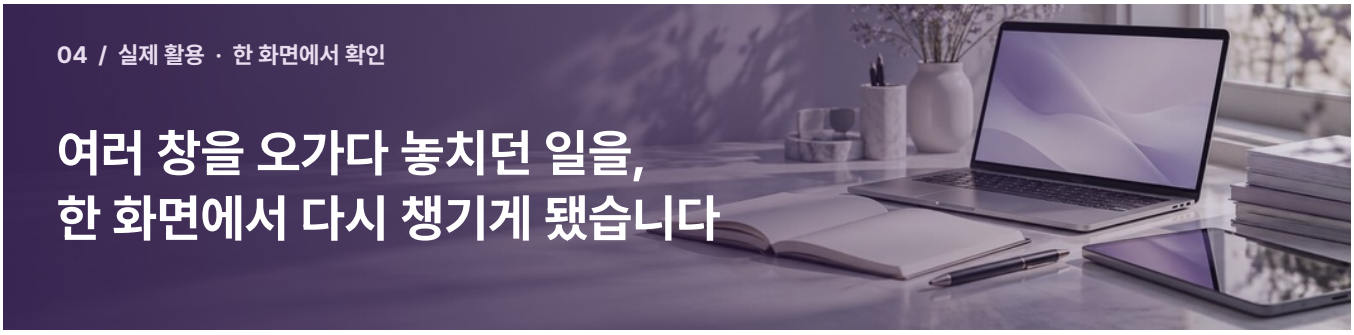


AI로 구성한 방법

AI의 도움으로 로그인 화면을 구성하고, 해외 서비스인 Supabase 인증과 Google 계정 로그인을 활용했습니다.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 가입 화면 대신, 기존 인증 서비스를 연결해 각자 계정으로 업무앱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사용하면서 달라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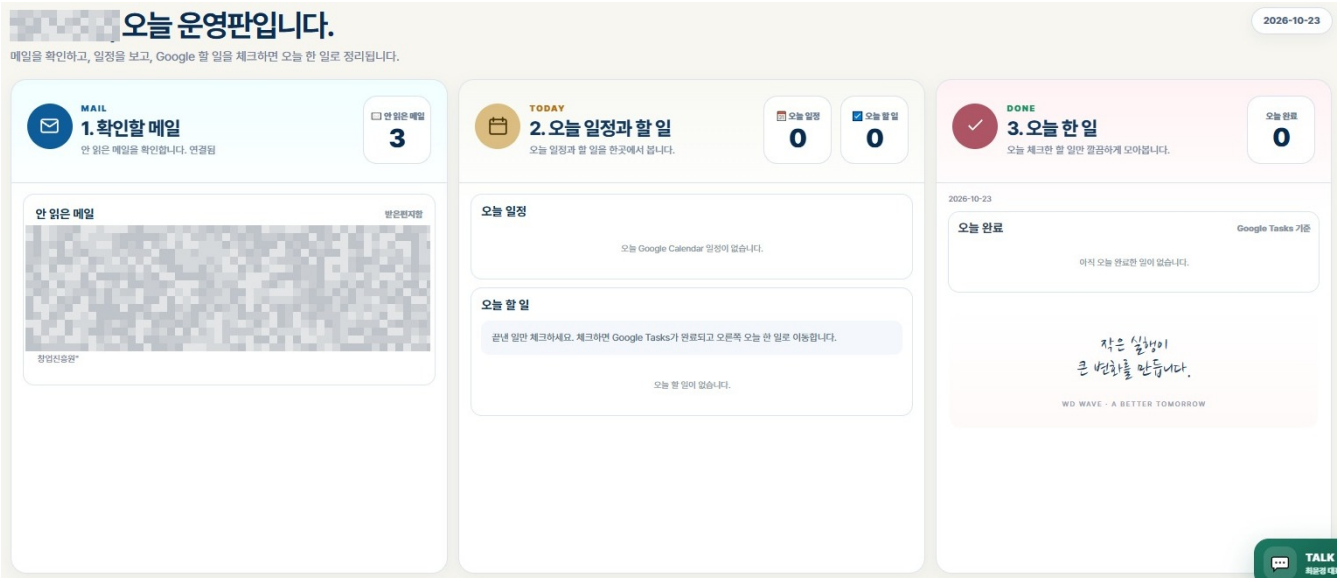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의 공용 계정을 함께 쓰지 않고 각자 로그인합니다.
구매한 도메인을 적용해 운영 중인 업무앱에 접속하고, 필요한 메뉴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소수 인원이지만, 우리 회사 방식에 맞춘 하나의 업무공간을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04 / 실제 활용 · 한 화면에서 확인

여러 창을 오가다 놓치던 일을, 한 화면에서 다시 챙기게 됐습니다

메일은 Gmail에서, 약속은 캘린더에서, 할 일은 또 다른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상담·영업·강의를 오가며 인터넷 창을 5~6개 열어 두다 보니, 다른 일을 하다가
원래 확인하려던 일을 잊거나 어디까지 했는지 다시 살펴야 했습니다.



AI로 구성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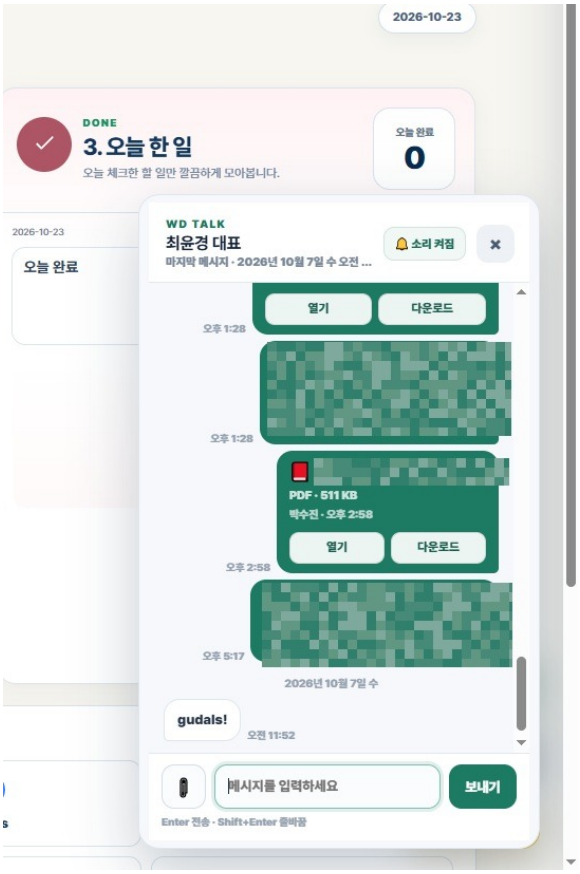
AI에게 메일·일정·할 일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Google과 연결해 안 읽은 메일, Calendar 일정, Tasks 할 일을 모으고,
할 일을 체크하면 완료 항목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용하면서 달라진 점

업무앱을 열면 오늘 확인할 메일과 일정, 해야 할 일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하다 흐름을 놓쳐도 이 화면으로 돌아와 남은 일과 완료한 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세 작업은 연결된 Google 서비스로 이어가며, 확인하러 오가는 수고를 줄였습니다.

05 / 실제 활용 · 우리끼리 TALK

대화하러 화면을 옮기던 불편을, 업무앱 안의 TALK로 줄였습니다



겪었던 불편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자료를 보낼 때는 카카오톡 등
별도 메신저를 열어야 했습니다.
업무 화면과 대화창을 오가면서
작업의 흐름이 끊기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AI로 구성한 방법

업무를 보면서 대화도 이어가도록
AI에게 앱 안의 TALK를 설명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대화를 열고,
메시지와 파일·링크를 주고받으며
첨부자료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용하면서 달라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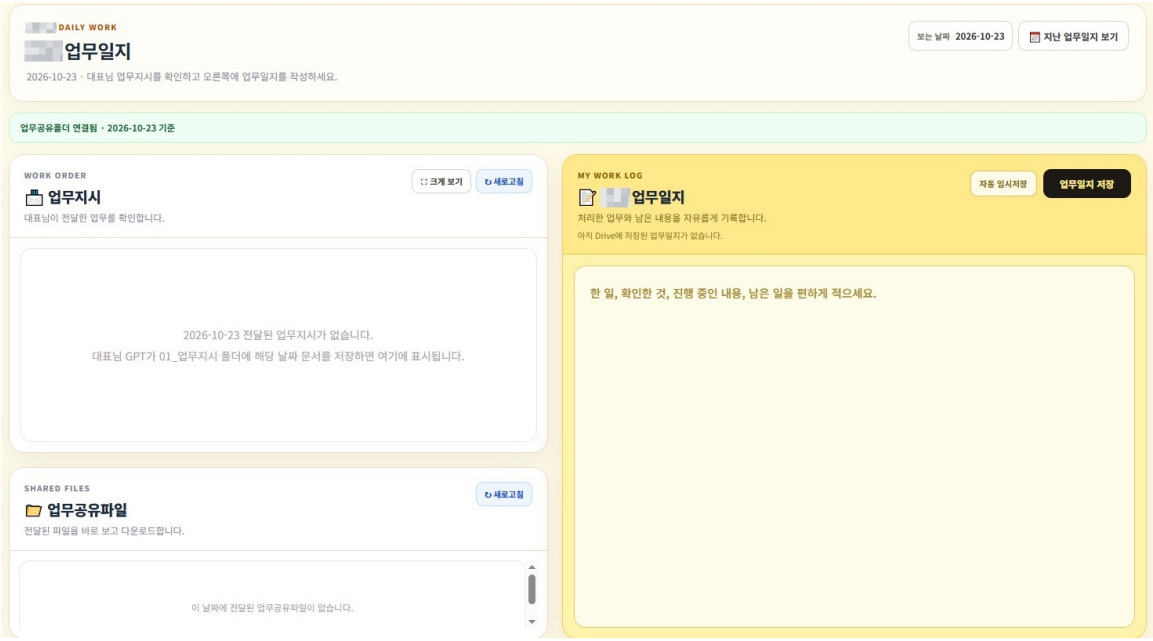
지금은 일하던 화면에서 TALK를 열어
동료에게 물어보고 자료를 전달합니다.
이전에 나눈 대화도 다시 확인하니,
무슨 이야기와 함께 보낸 자료인지
찾아보고 업무를 이어가기 편해졌습니다.



06 / 실제 활용 · 업무센터

업무를 전달한 뒤의 진행까지, 자료와 기록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함께 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필요한 자료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와 파일, 한 일에 대한 기록이 흩어져 있으면 다시 찾아보기가 번거롭습니다.
전달에서 끝나지 않고, 진행 내용과 남은 일까지 한곳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AI로 구성한 방법

AI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공유하며,
결과를 기록하는 화면을 설명했습니다.
왼쪽에는 지시와 Drive 공유자료를,
오른쪽에는 업무일지를 배치했습니다.
업무매뉴얼·작업결과·근무기록도
관련 메뉴에서 찾도록 구성했습니다.

사용하면서 달라진 점

전달받은 업무와 자료를 확인한 뒤,
한 일·진행 중인 일·남은 일을
업무일지에 적어 저장합니다.
나중에 기록을 다시 읽으며
어디까지 했고 무엇을 이어갈지
확인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07 / 활용 결과와 나만의 개선 포인트

여러 창을 오가던 업무가, 한곳에서 시작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체감한 변화는 필요한 것을 더 빨리 확인하고, 놓친 일을 다시 찾기 쉬워진 점입니다.
아래는 실제 사용에서 체감한 변화이며, 시간 절감률이나 생산성 수치를 측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전의 불편	사용하면서 달라진 점
인터넷 창 5~6개를 열고 메일·일정·자료를 따로 확인	업무앱을 시작점으로 삼아 오늘 확인할 일을 한눈에 살피기
다른 일을 하다 흐름을 놓치면 무엇부터 할지 다시 떠올리기	할 일과 완료 항목을 보며 하던 업무의 흐름으로 돌아오기
대화·자료 전달·업무 기록을 각각 찾아가며 처리하기	TALK와 업무센터에서 공유하고 기록하는 흐름 이어가기

나만의 방법은 “모르는 것을 계속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 경험을 가장 중요한 재료로

주어진 프롬프트나 템플릿을 그대로 쓰기보다, 내 업무와 불편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한 단계씩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묻고, 지금 할 일 하나부터 안내받으며 직접 확인했습니다.

처음의 시간을, 익숙해지는 과정으로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반복하며 배우고 사용할수록 걸리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08 / 책임 있는 AI 활용

직접 경험한 변화와,
확인해야 할 범위를 구분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를 그대로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제가 무엇을 요청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실제 경험, 설명용 이미지와 앞으로의
운영 기준을 구분해 이 사례를 읽는 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01 실제 화면과 설명용 이미지를 구분

4~7페이지는 사용 중인 업무앱 화면입니다. 2페이지 하단과 3페이지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는 AI 생성 이미지·일러스트이며, 실제 업무 수행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화면은 기능과 구성을 보여 주며, 누적 이용량이나 성과 수치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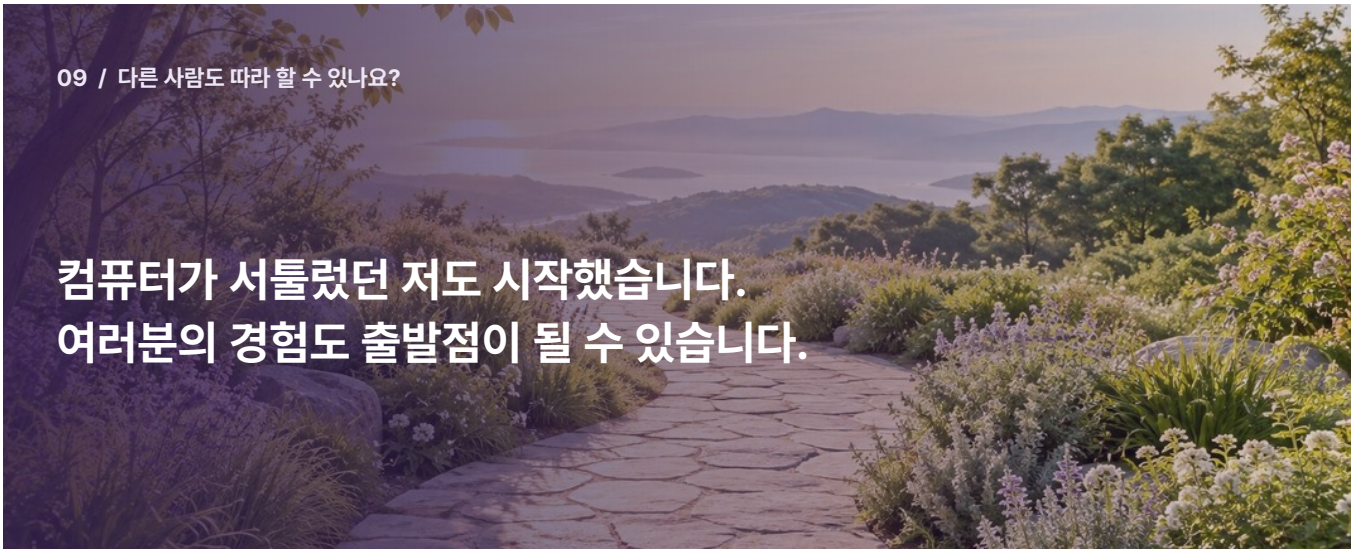
02 공개 자료에서는 이름과 업무정보를 보호

제출 화면의 동료 이름과 대화 속 식별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로그인에는
Supabase와 Google 인증을 활용하지만, 서비스 이용 자체가 모든 보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공개·공유 전 정보 노출 범위와 접근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운영 기준입니다.

03 AI의 제안과 사용자의 판단을 분리

이 사례는 기능을 정리하고 제작·수정하는 데 AI를 활용한 경험입니다. 고객정보나
비공개 업무자료를 AI에 입력하지 않고, 제안된 기능의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활용 원칙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류나 불편을 발견하면 수정하며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재 기준 · 활용 효과는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며, 측정하지 않은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답의 출발점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례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참고가 되지만, 나에게 꼭 맞는 답은 아닙니다.
내 일을 가장 잘 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AI와 대화하며 맞춰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들더라도, 모른다고 멈추지 않고 질문을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내 상황과 모르는 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잘 정리된 질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주 겪는 불편과 원하는 모습을 말해 보세요.

2 **쉬운 설명을 요청하고, 하나씩 해 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묻고, 한 단계씩 따라 하며 실제로 되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3 **내게 맞을 때까지 대화하며 바꿉니다**

써 보니 불편한 점을 다시 설명해 보세요. 필요한 연동과 기능도 차근차근 더합니다.

정답 프롬프트가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예시

"저는 컴퓨터가 서툴고, 일을 하다 할 일을 자주 잊어요.
한곳에서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한 단계씩 알려 주세요."

모른다는 이유로, 나의 가능성을 먼저 제한하지 마세요.
내 경험을 믿고, AI와 질문을 이어 가며 나만의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